지역경제 연말 자금난 시달린다

기업 수출·내수 동시 감소 등 경기 회복세 주춤에 악화

연말 지역경제가 자금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심리와 기업경기지수가 꺾인 데 이어 지역기업들의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감소하는 등 경기 회복세가 주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매출액 20억 원 이상 기업 319개 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2009년 11월 기업자금사정 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중 자금사정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92로 전달(93)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은 98로 전달 수준을 유지했지만 비제조업은 85로 전달(87)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BSI는 기준치인 100 이상이면 긍정적인 응답업체 수가 부정적인 응답 업체 수보다 많음을, 100 이하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11월 중 자금수요 BSI도 제조업(115→113)과 비제조업(107→104)이 각각 2포인트와 3포인트 하락하면서 전달의 111에서 109로 2포인트 떨어졌고 자금조달 BSI도 97에서 96으로 1포인트 하락했다.

12월 중 자금사정전망 BSI(94→91)는 제조업(95→91)과 비제조업(92→90) 모두 내려가며 전체적으로 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상장사들의 3분기(1~9월)까지 수출과 내수는 지난해에 비해 많이 감소했다. 이날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광주·전남 지역 12월 결산 법인 2009년 3분기 수출 및 내수 현황'에 따르면 올 누적 3분기 수출 금액은 총 1조2천18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조4천338억 원보다 15.05%(2천158억 원) 감소했다.

내수는 총 1조5천16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조7천102억 원과 비교해 11.35%(1천941억 원) 감소했으며 매출액 대비 내수 비중도 1.06%포인트 하락했다.

한편, 이날 호남통계청에 따르면 광주의 10월 광공업 생산은 전자부품 및 영상음향통신을 중심으로 전기장비 등에서 증가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 증가했다. 전남의 광공업 생산도 금속가공(88.4%), 식료품(33.3%), 화학제품(7.2%) 등의 증가에 힘입어 8% 증가했다.

또 10월 중 광주·전남 지역 중소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0.8%로 전달(68.4%)보다 2.4%포인트 상승했다.

/장필수·윤현석·김지을 기자 bungy@

신세계 정용진 체제로

총괄대표이사 내정

박건현 백화점부문 대표

최병렬 이마트부문 대표

〈정용진 총괄대표〉

〈박건현 대표〉

〈최병렬 대표〉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신세계 총괄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신세계 대표이사인 구학서 부회장은 회장으로 승진하게 됐다.

신세계는 이를 포함해 12월 1일자로 총 65명에 대한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명단 16면〉

백화점부문 대표이사로는 센텀시티점장인 박건현(53) 부사장이, 이마트부문 대표이사로는 ㈜신세계푸드 최병렬(60) 대표이사가 각각 내정됐다.

박 내정자는 영남대를 졸업해 1982년 신세계에 입사, 광주신세계 백화점 점장과 신세계 백화점부문 본점장을 거쳤다.

최 내정자는 목포고를 졸업하고 1974년에 신세계에 입사해 이마트 분당점 점장과 이마트부문 판매담당 상무 등을 거쳐 대표이사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구학서 부회장은 회장으로 승진하면서 대표에서 물러나고, 정 부회장이 총괄대표로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박건현, 최병렬 각 부문 대표와 함께 공동대표 체제를 이끌게 됐다.

신세계 측은 "지난 10년 동안 유통업의 기초와 틀을 잡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업의 본질적인 경쟁력 강화가 핵심이라고 판단해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새로운 비전에 맞는 혁신을 이끌어갈 젊은 인재를 발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기아차 쏘울, 앤디 워홀을 입다

앤디 워홀 아트카 제작

13일까지 '시승단' 모집

기아차 쏘울이 앤디 워홀의 작품을 입는다.

기아차는 12일부터 내년 4월4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앤디 워홀의 위대한 세계' 전시회를 후원하고, 크로스오버 차량인 '쏘울'에 그의 작품을 입힌 '앤디 워홀 아트카'를 제작할 계획이다.

쏘울은 한국차 최초로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레드닷 어워드'를 수상한 것을 비롯, 미국 자동차 전문미디어인 워즈오토로부터 '올해의 인테리어상-가장 멋진 인테리어'를 수상하는 등 디자인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기아차는 개성을 강조,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쏘울의 디자인에 팝 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의 작품을 입혀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겠다는 복안이다.

기아차는 이를 위해 앤디 워홀 아트카를 고객들이 직접 타보는 이벤트를 위해 1~13일 인터넷 홈페이지(http : //www.kia.co.kr)를 통해 시승단을 모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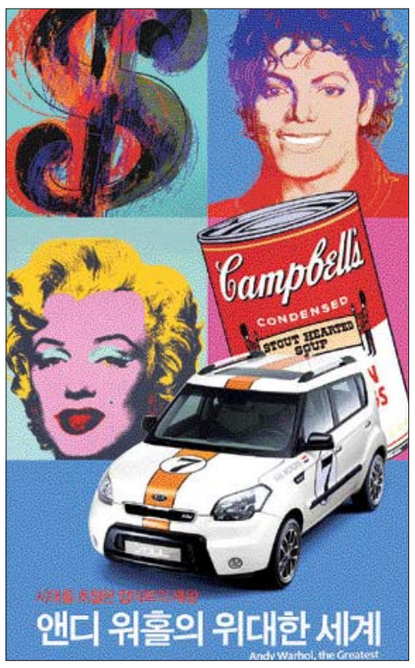
쏘울 관련 퀴즈 이벤트 정답자 중 추첨으로 매달 15명을 뽑아 한 달간의 시승기회를 줄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홈페이지 게시판에 아트카 시승을 희망하는 사연을 남기는 고객을 심사해 4개월간의 시승기회와 월 10만원 상당의 유류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수도권 거주자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내달 15일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한편, 앤디 워홀 전시회에서는 그의 자화상을 비롯해 마릴린 먼로와 마오쩌둥 같은 세계적인 인물의 초상화 등 대표작 200점이 선보인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기아차는 '쏘울'에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의 작품을 입히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쏘울의 개성있는 디자인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금호렌터카 우선협상자에 'KT컨소시엄'

금호렌터카 우선협상대상자에 KT-MBK컨소시엄이 선정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매각주간사인 산업은행은 지난달 30일 "금호렌터가 인수를 위한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찰 제안서를 검토해 KT-MBK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마감한 금호렌터카의 본 입찰에는 KT-MBK파트너스 컨소시엄과 롯데, 신한PE 및 외국계 PE일부 등 총 5곳이 참여했으며, 이 중 KT와 MBK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유력한 경쟁자로 평가받아 왔다.

금호아시아나는 KT-MBK컨소시엄과 인수조건에 관한 최종 협의를 거쳐 이달 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그룹측은 "KT-MBK컨소시엄이 향후 KT렌탈 렌터카 사업부문과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고 인수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에 이어 금호렌터카의 우선협상자가 선정된데다, 금호생명도 본계약 체결이 이뤄지면서 그룹 구조조정도 한층 탄력을 받게됐다.

금호렌터카는 렌터카시장 점유율 1위(9월 말 기준 24.5%) 업체로, 5만여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국내외에 160여개 영업망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3천600억원으로, 올해 4천800억원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대한상의 부회장 선출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광주상의는 지난달 27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상임의원회 겸 임시의원 총회에서 박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2012년 3월까지로, 박 회장은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개선하는데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